

논 술

수험번호 () 지원모집단위 () 성명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0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애덤 스미스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의미에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며, 구성원이 법을 잘 지키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다. 법과 그 적용 및 해석이 정의에 합치되지 않거나 충분히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공정한 사회의 기본 요건 중의 하나로 공정한 처벌이 제시된다. 공정한 처벌은 공정한 법과 그에 따른 판결을 전제한다. 부패에 대한 엄중하면서도 공정한 처벌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 한 사회의 경쟁과 분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요청된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제시문 2>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와 협력정책을 이른바 ‘햇볕정책’이라 부르기도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였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이솝 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이는 남북한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을 추진한 결과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상호협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이 교환되었고, 비전향 장기수들이 복송되었으며, 끊어졌던 경의선이 이어졌고 금강산 관광시설이 확충되었다. 또한, 개성 공업지구가 세워져 대북 지원과 경제 교역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민간 차원의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류도 확대되었다.

- 『고등학교 한국사』

<제시문 3>



- 『고등학교 경제』

<제시문 4>

나뭇가지를 치는 계절에는 하루에 24수*의 수입이 있었다. 그 밖에 들일, 품일, 농장의 소몰이, 농사일 등을 닦치는 대로 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다했다. 누이는 누이대로 벌었지만, 아이가 일곱이나 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갈수록 가난에 쫓기고 몰리는 가없는 무리들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혹독한 겨울이 왔다. 장은 일거리가 없었다. 집에는 빵이 없었다. 말 그대로 한 조각의 빵도 없었다. 어린 아이들이 일곱이나 있는데도!

어느 일요일 저녁, 파브를 교회 앞 광장에 있는 빵집 주인 모베르 이자보가 막 잠들려는 참이었다. 가게의 창살 달린 유리 진열장이 팽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 보니 마침 그때 창살과 유리를 한꺼번에 주먹으로 깨뜨린 구멍으로 손 하나가 쑥 들어와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 손은 빵 하나를 훔쳐 가지고 나갔다.

이자보는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다. 도둑은 쓴살같이 달아났다. 이자보는 그를 쫓아가 붙잡았다. 도둑은 이미 빵을 내던져 버려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팔에서 아직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장 발장이었다.

이것은 1795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장 발장은 ‘한밤중 남의 집 창을 부수고 도둑질한 죄’로 재판관 앞에 끌려나갔다.

<중략>

장 발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전의 규정은 뚜렷했다. 우리들의 문명에도 두려운 시기가 있다. 형벌이 인생의 파멸을 선언하는 때이다. 사회가 멀어지고 하나의 정신을 지닌 인간이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버림받는 순간, 아, 그것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순간인가! 장 발장은 5년의 징역을 선고 받고 항구의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

*수(sou): 프랑스의 옛 화폐 단위

- 『고등학교 문학』

<제시문 5>

일본의 전통 씨름인 스모에서 선수들의 순위는 그들의 인생 전반을 지배한다. 수입과 추종자들의 수, 얼마나 많이 먹고 자야 하는지,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등등. 엘리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선수들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며 마치 귀족과도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스모 선수의 순위는 정규 대회의 결과로 결정된다. 각각의 선수들은 열다섯 번의 시합을 가지는데, 8승 이상의 전적으로 대회를 마치면 순위가 상승하며 7승 이하의 전적으로 패배하면 순위가 하락한다. 따라서 스모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합은 8승째를 가르는 순간이다. 위로 올라갈 것인가 밑으로 추락할 것인가가 그 한 시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8승6패의 전적으로 이미 순위 상승이 확정된 선수가, 7승7패를 기록하고 있어 마지막 15번째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대 선수에게 일부러 저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럼 스모 시합이 조작될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다음의 통계수치는 대회 마지막 날 7승7패의 선수들이 8승6패의 선수들을 맞아 싸운 몇 백 건의 시합 기록을 종합한 것이다. 왼쪽은 그날 싸우는 두 선수들의 과거 시합 기록을 바탕으로 7승7패의 선수들이 승리할 확률을 계산한 것이며, 오른쪽 숫자는 그들이 실제로 시합에서 이긴 확률이다.

과거 성적을 바탕으로 한 예상 승률	실제 시합에서의 승률
48.7%	79.6%

이 통계에 의하면 예상 승률보다 7승7패의 선수들의 실제 승률이 턱없이 높았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선수들 사이에 일종의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 정말 위험한데, 오늘 내가 이기게 해주면 다음번에는 내가 저줄게.” 엘리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주어지는 보상으로 인해 이러한 약함이 일어난 것이다.

- 스티븐 레빗 · 스티븐 더브너, 『과파 경제학』 재구성

<제시문 6>



학교 주변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하지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줄지 않으면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난 가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의 단순 법규위반에 따른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중 92.7%를 차지한다.

법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일반도로보다 높은 벌점과 두 배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도 미미하며 긍정적 보상책 역시 논의되고 있으나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적인 유인책보다, 운전자의 경각심과 아이들의 주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스쿨존 횡단보도에 시도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횡단보도 앞 '엘로카펫'이다. 엘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고안한 교통 안전시설로서, 강요나 보상에 의하지 않고 내적 동기를 자극해 자연스럽게 선택을 이끄는 힘이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이용한 장치다.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엘로카펫 설치 시 횡단보도 대기선 안에서 보행자가 대기하는 비율은 66.7%에서 91.4%로 약 24.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율은 41.3%에서 66.7%로 25.4%p 높아져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도로교통공단, 「엘로카펫 설치효과분석」 재구성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제시문 6>의 입장에서, <문제 1>의 두 입장이 공통적으로 갖는 한계를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활용하여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제 3]

다음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떤 것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더 효과적일지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We don't like to lose things that we own. We tend to become extremely attracted to objects in our possession, and feel anxious to give them up. Ironically, the more we have, the more vulnerable we are. Having accumulated wealth implies that we have more to lose than to gain.

Why are we so afraid of losing? Our aversion* to loss is a strong emotion. The aversive response reflects the critical role of negative emotions (anxiety and fear) to losses. In other words, loss aversion is an expression of fear. This explains why we tend to be affected by the negative incentives more than the positive ones. As Charles Darwin once said, "Everyone feels blame more acutely than praise."

We are more upset about losing \$10 than we are happy finding \$10. Roughly speaking, losses hurt about twice as much as gains make you feel good. This is why in marital** interactions it generally takes at least five kind comments to offset for one critical comment.

* aversion: 회피

** marital: 부부간의

- Shahram Heshmat, "What Is Loss Aversion?" (www.psychologytoday.com) 재구성